

2024

# 청년세대 관계실조

보고서

ISSUE 1



# 일러두기

- 본 보고서는 3개의 이슈 보고서와 1개의 통합 보고서로 나뉘어 발간될 예정임.
- 본 보고서는 3개의 이슈 보고서 중 이슈1에 해당하는 보고서임.
- 본 보고서는 2024.6.12 발행하고, 통합 보고서는 2024.8.12 발행 예정임.
- 정량조사 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된 수치로 총 합계가 100.00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관계'라는 단어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이 소통하는 것을 의미함.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관계맺기'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과 소통하는 모든 상황으로, 친밀감이나 빈도와는 관련이 없음.

# INDEX

## 01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 2) 조사 방법

## 02 조사 결과

- 1) 청년의 관계맺기 현황
- 2) 이슈1\_알고리즘 현상



# 현재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 SNS&커뮤니티 활성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집 안에서  
편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



1

2

## 트라이브십&인덱스 관계

개인 지향 기반의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트렌드를 사회는 주목



1) 편리하게, 2) 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기사 한번쯤은 보셨죠?

매일 1.6명의 청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2023

2030 우울증  
36만명 시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우울증 진료 통계', 2024

73.3%의 청년이  
고립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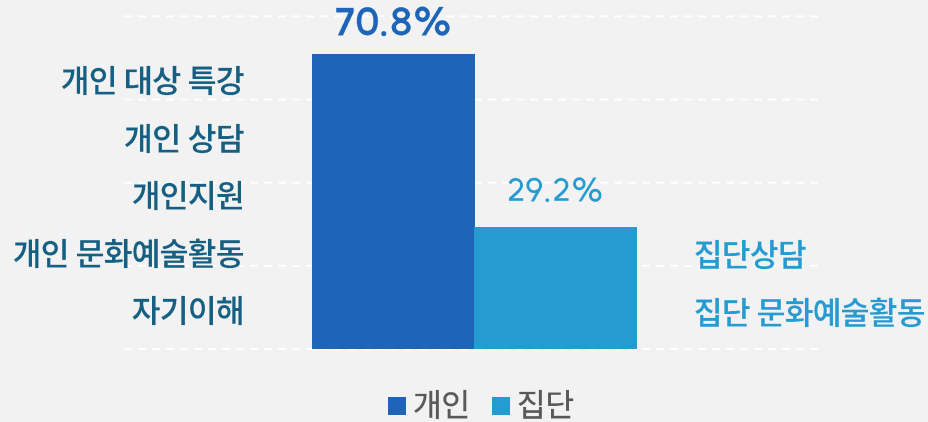
사단법인 오늘은  
'2022 청년세대의 고립보고서', 2022

편리하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고, 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도  
**청년은 고립과 외로움, 그에 따른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어떤 방안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 [2024년 청년 대상 마음챙김 프로그램 수]

(base: 청년몽땅정보통 2024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n=154)



\* 2024.1.1~2024.5.29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최근 1년간 마음챙김 연관 키워드]

개인 집단

(base: 썸트렌드 마음챙김 빅데이터 분석 상위20개 키워드, \*, n=245,714)



\* 2023.5.27~2024.5.26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사회는 개인의 변화를 주로 요구합니다.

과연 청년 개인만 달라지면 되는 걸까요?

# <사단법인 오늘은>은 '관계맺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더 솔직한 마음들을 꺼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고,  
서로 내밀함을 공유한 사이라는 점에서 함께 수업을 들은 분들과  
끈끈한, 멀고도 가까운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다름을 서로 받아들이고,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클래스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매주 만나 눈빛과 손짓을 주고 받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아트퍼스트 시즌' 만족도조사 응답 발췌

청년 개인의 마음챙김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오히려 '관계의 힘'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 '의미있는 관계맺기'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에 대한 케어가 아닌  
의미있는 관계맺기를 통해 청년 문제에 접근해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보고서는 시작합니다.





- 본 보고서에 활용한 정량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구분	내용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
조사대상	만 19~29세 청년
유효표본	500명
조사기간	2024.3.15.~20
조사내용	청년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관계, 청년의 관계맺기 특성 청년의 라이프 특성, 다양성을 위한 노력

- 본 보고서에 활용한 정성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구분	내용
조사방법	오프라인 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대상	만 19~29세 청년 9명
조사기간	2024.4.11.~25
조사내용	정량조사에 대한 개인적 경험 청취

# 청년의 관계맺기 현황



# 청년의 일주일 내 관계맺기 현황

관계맺기에 사용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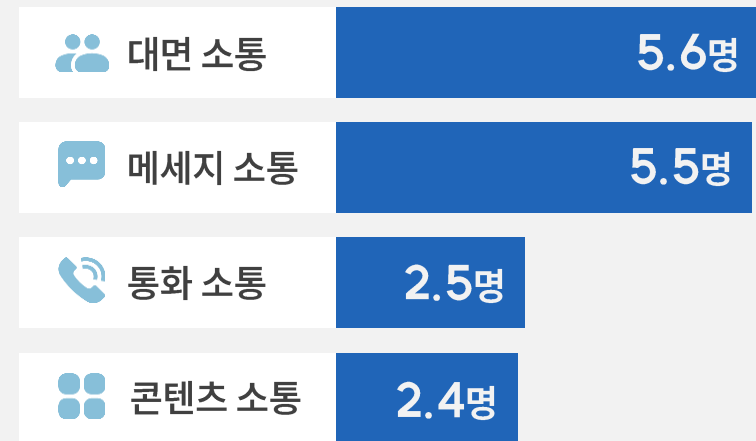
(base: 전체, n=500)

관계를 맺은 대상



(base: 전체, n=500) / 중복포함

최근 일주일, 소통 수단에 따른 관계맺기 인원수



(base: 전체,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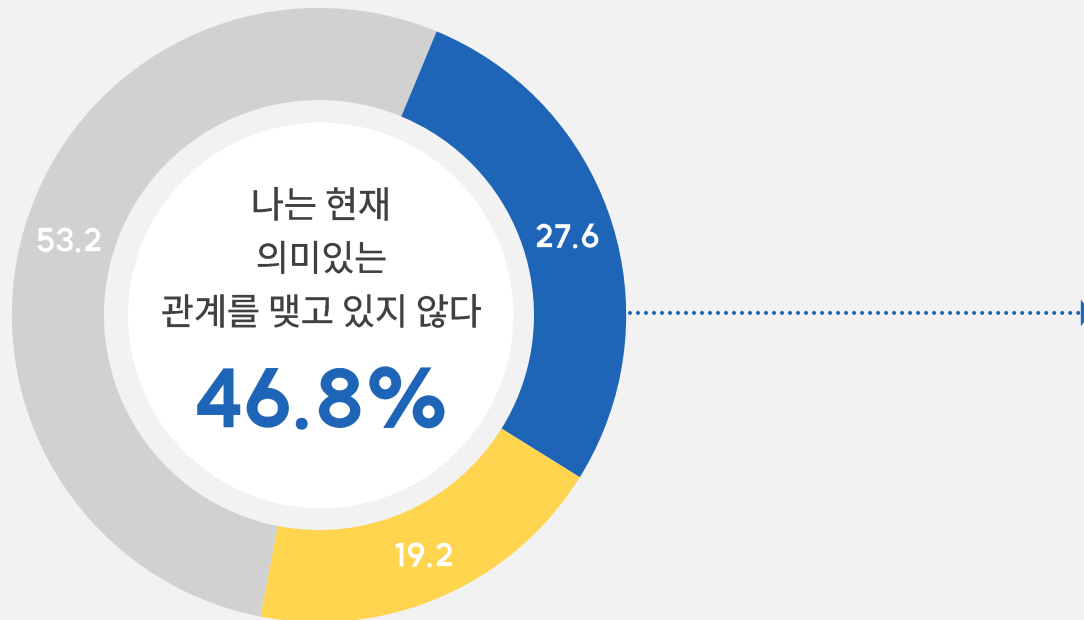
청년은 일주일 평균 574.7분의 시간을 사용하여  
평균 16명의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소통한 사람이 가장 많고, 메시지 소통에 비해 통화 소통은 적습니다.

일주일 평균 16명과 소통하고 있지만,  
**10명의 청년 중 4.6명은 의미있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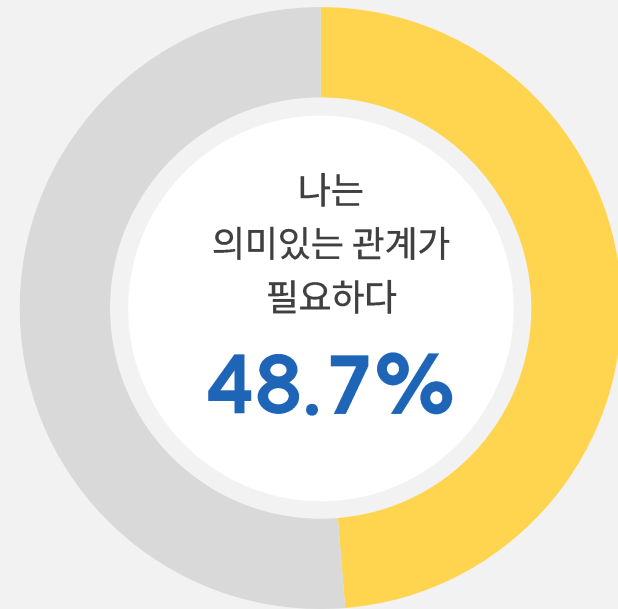
**[현재 의미있는 관계맺기 여부]**

(base: 전체, n=500, MID = 27.6%, BOT2 = 19.2%)



**[의미있는 관계 필요 여부]**

(base: 현재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 n=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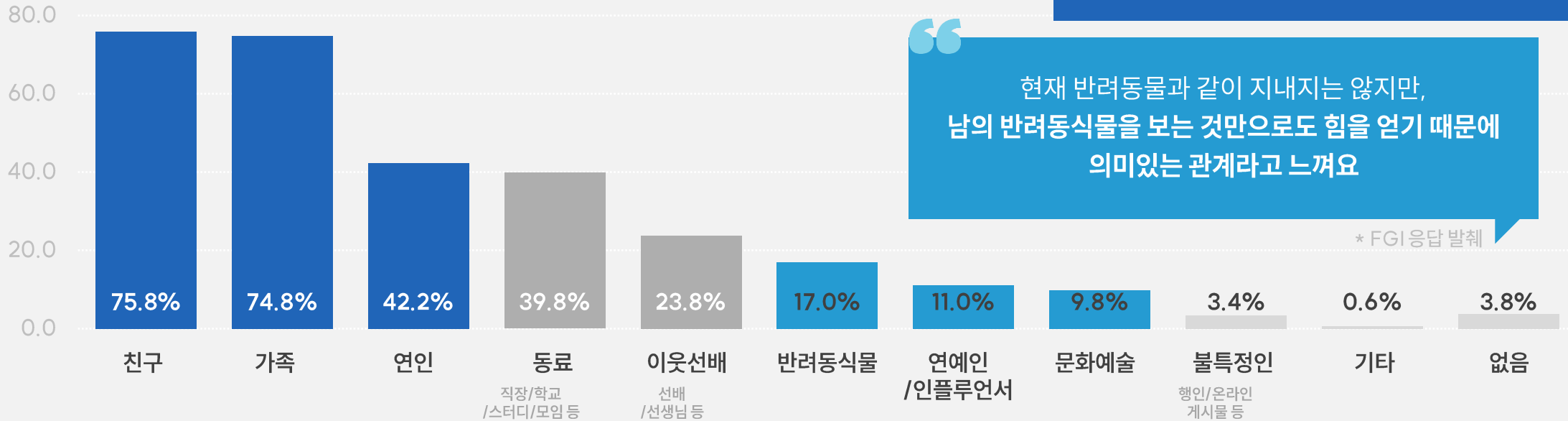


10명 중 4.6명의 청년이 현재 의미있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중 4.8명은 의미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청년들에게 의미있는 관계란 무엇이기에 부족함을 느낄까요?

## [의미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대상]

(base: 전체, n=복수응답)



“뮤지컬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경험이 있어 문화예술도 의미있는 관계로 느껴져요

“현재 반려동물과 같이 지내지는 않지만, 남의 반려동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기 때문에 의미있는 관계라고 느껴요

\* FGI 응답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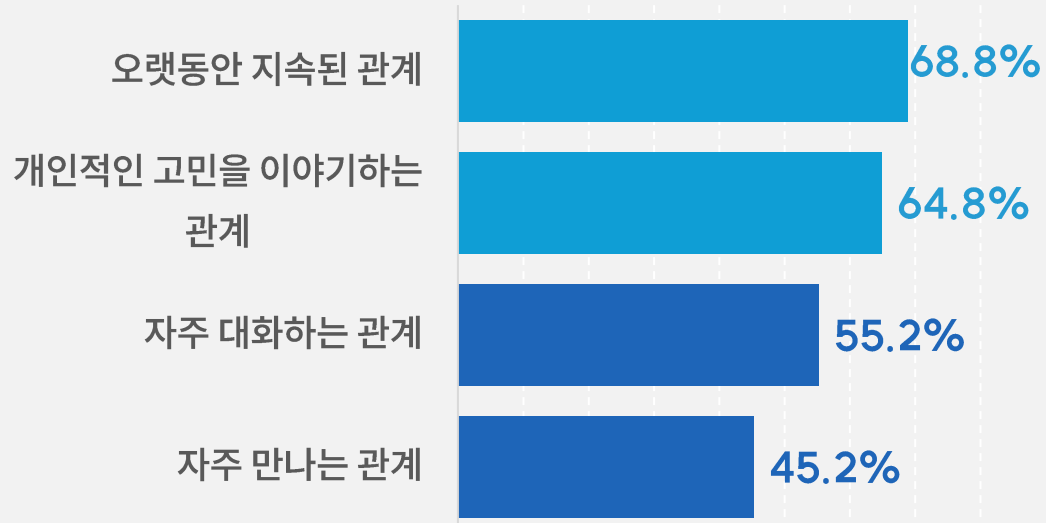
친구, 가족, 연인이 주를 이루며, 반려동물(17.0%), 연예인/인플루언서(11.0%), 문화예술(9.8%)도 의미있는 관계라고 응답합니다. 과거에 '관계'의 범주에서 속하지 않았던 대상도 감정적 교류가 있으면 의미있는 관계라고 느끼고 있는 현황입니다.

**오늘날 청년이 생각하는 '관계'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습니다.**

# 의미있는 관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감정 교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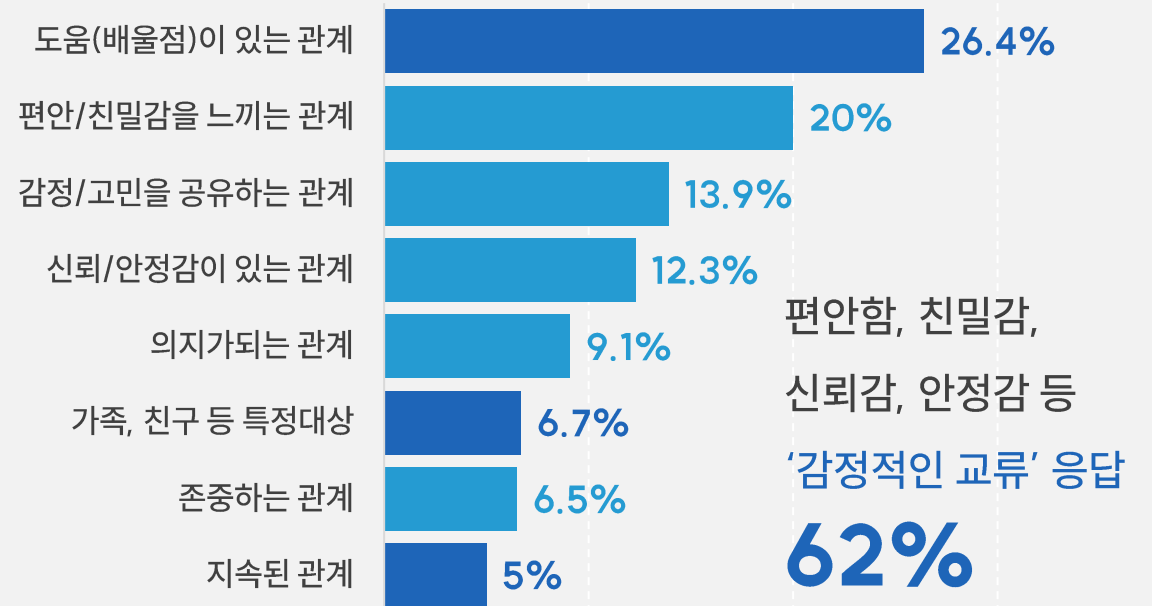
## [의미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조건]

(base: 전체, n=복수응답)



## [의미있는 관계의 정의-주관식 응답 분석]

(base: 전체, n=448, 주관식 응답을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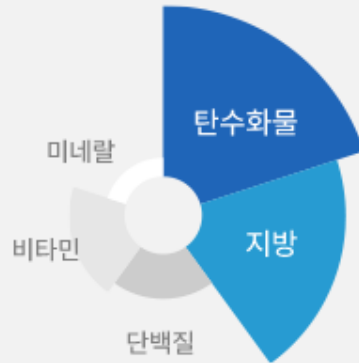


만남과 대화의 빈도보다는 눈 앞에 보이지 않는 감정으로 교류할 때  
의미있는 관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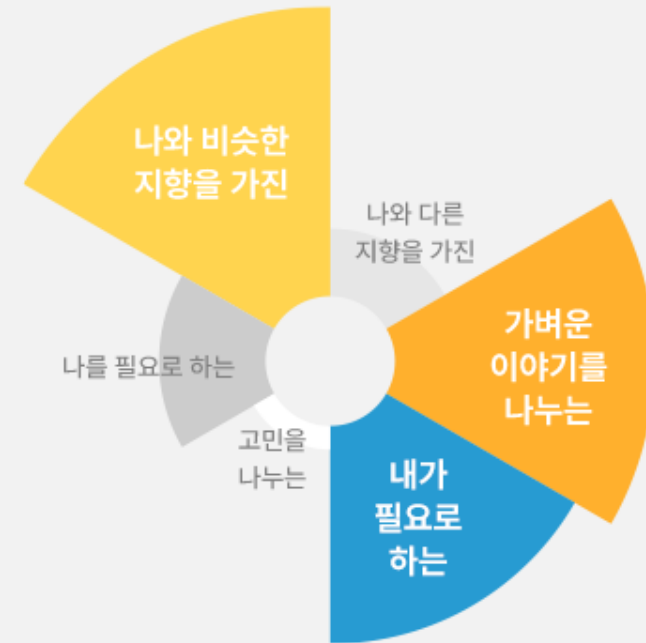
일주일 평균 16명의 대상과 소통하지만 필요로 하는 의미있는 관계는 부족하다는 청년

## 풍요 속의 빈곤 아닐까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영양소가 불균형하여 발생하는 영양실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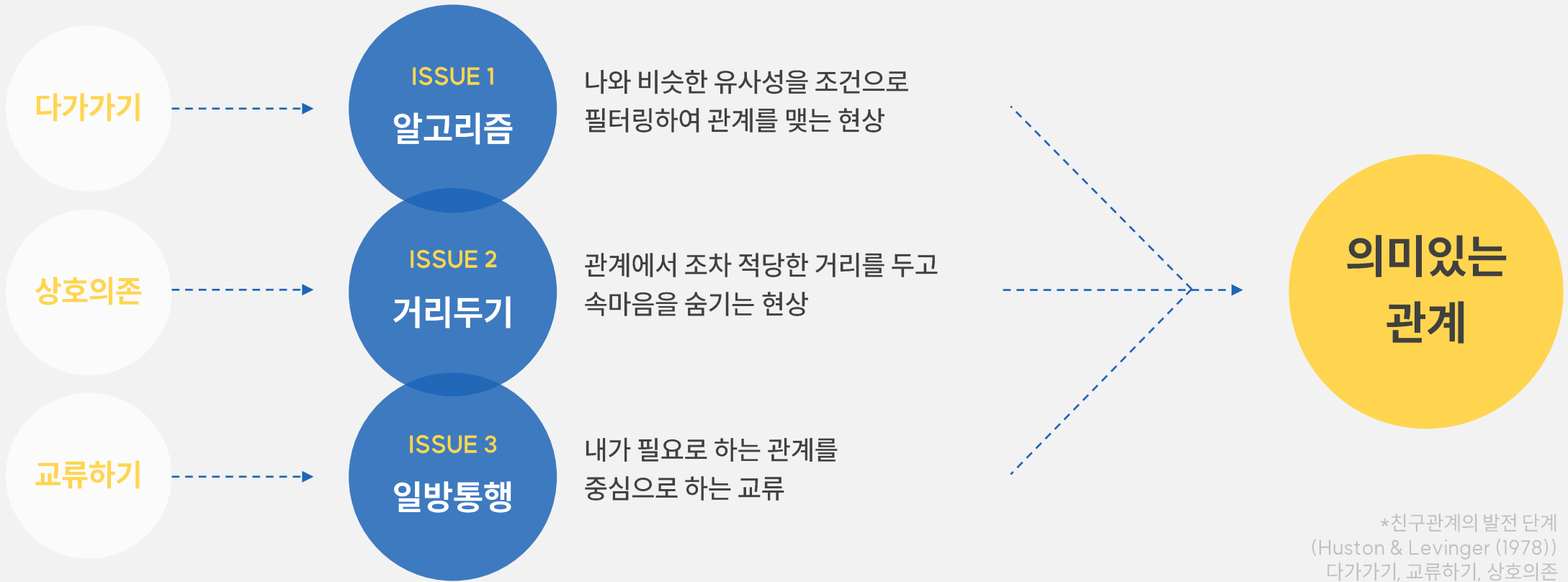
편리하게 다양한 관계맺기가 가능한 사회에서  
영양소가 불균형하여 발생하는 관계실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의미있는 관계는 결핍된 청년들의 상황을 관계실조라고 정의하고  
관계실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의 청년이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세가지 현상을 발견하고

# 이 보고서를 통해 관계실조의 원인이 되는 세가지 현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ISSUE 1

# 알고리즘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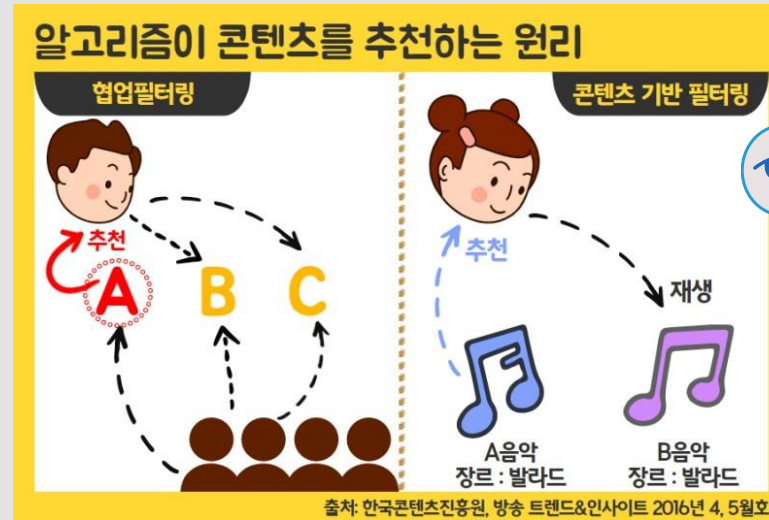
# 관계의 알고리즘 현상

가치관, 취미, 취향 등 유사성을 조건으로 관계를 맺는 것

마치 유튜브를 볼 때 알고리즘에 의해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만 떠서 새롭게 검색하지 않으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볼 수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 알고리즘(Algorit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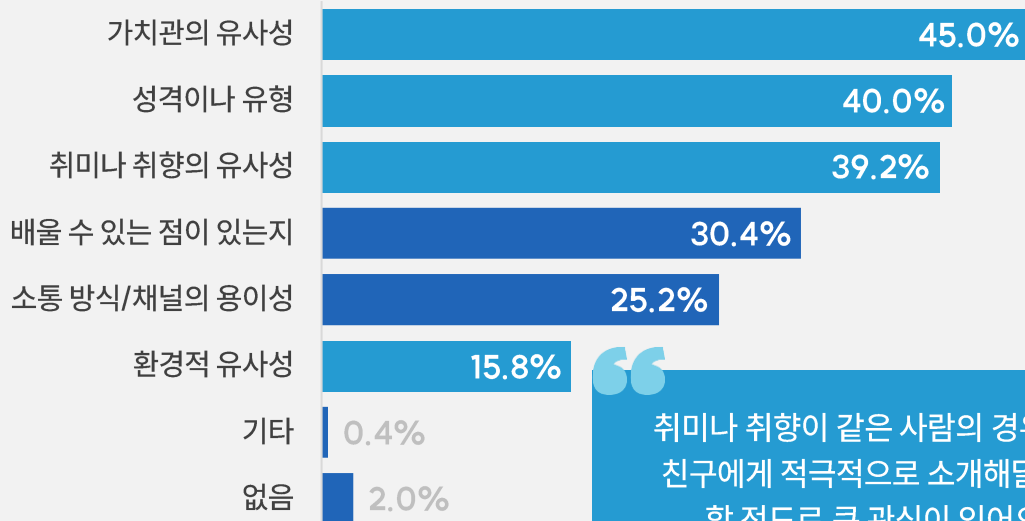
사전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이며,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시청 기록,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계



# 나와 비슷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지만 유사성이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고려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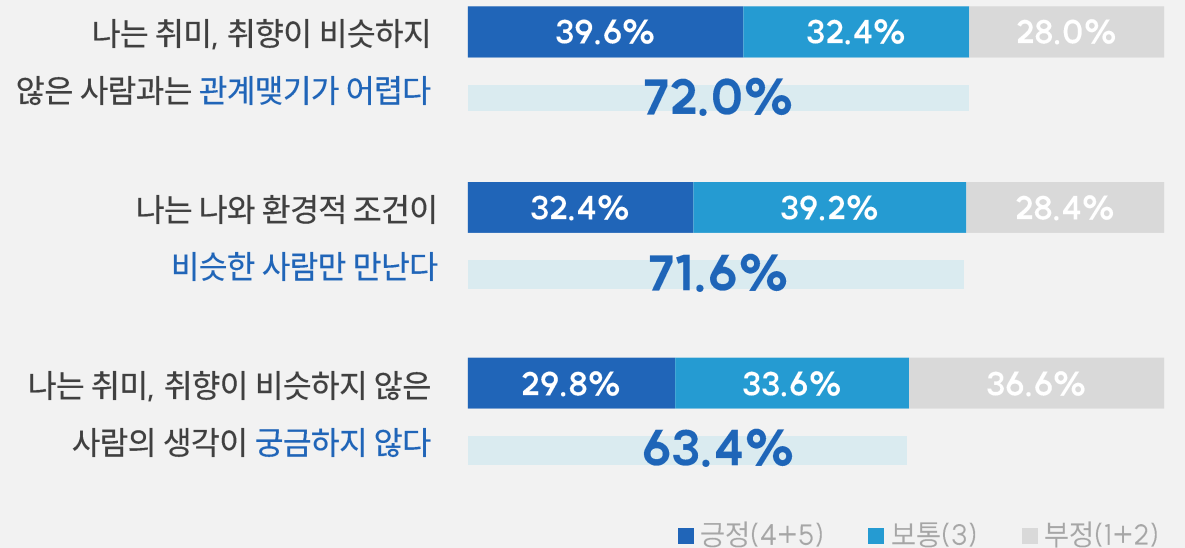
(base: 전체, n=500, 1+2 순위)



“취미나 취향이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할 정도로 큰 관심이 있어요.”

## [관계 속 유사성에 대한 청년의 생각]

(base: 전체, n=500, 5점 척도)



유사성이 없는 사람과 관계맺기를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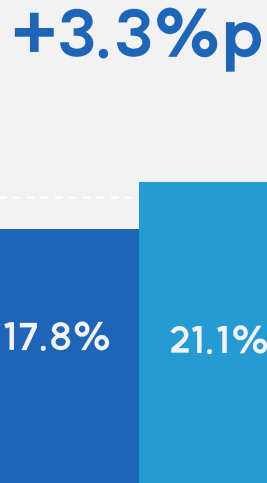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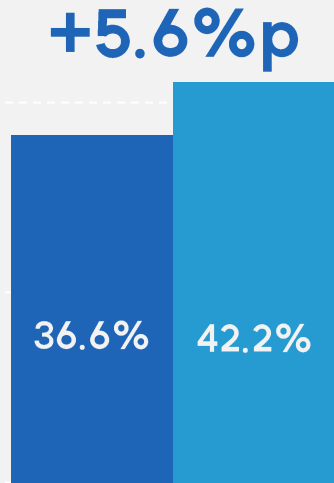
#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왜 어렵게 느낄까요?

청년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이 피로하다]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어렵다]

■ base: 전체, n=500    ■ base: 취미/취향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과 관계맺기가 어렵다는 응답자, n=360  
보통+긍정비율 (3+4+5)



취미나 취향이 다르면 피로감을 느껴요.  
관심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이 필요해요. 잘 모르는 영역이기에  
검색 같은 것을 통해 그 취미를 파악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개인의 가치관은 단기간에 개인이 노력해서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더 고생하는 것을 감내하더라도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 FGI 응답 발췌

나와 다른 사람과 맞추어 나가는 과정도 노력으로 느껴  
피로하고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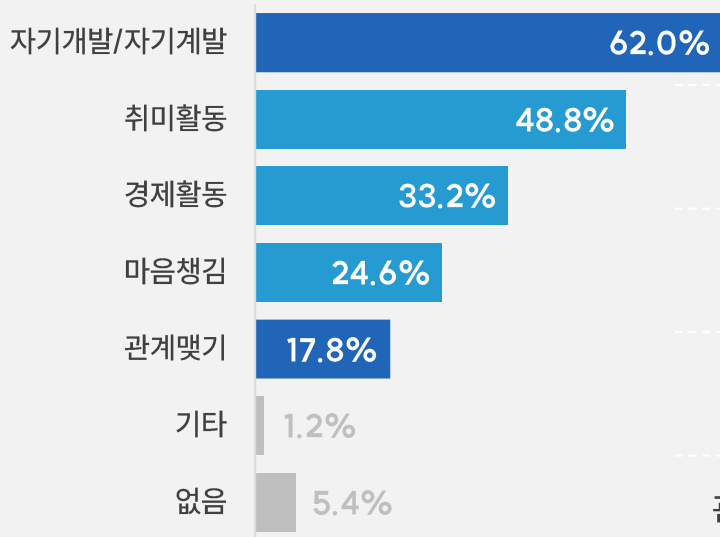
#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왜 어렵게 느낄까요?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 [갓생\*을 사는 청년들]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뜻하며, 특히 학업과 운동 분야에서 갓생을 추구하는 모습이 두드러짐

(base: 전체, n=500, 1+2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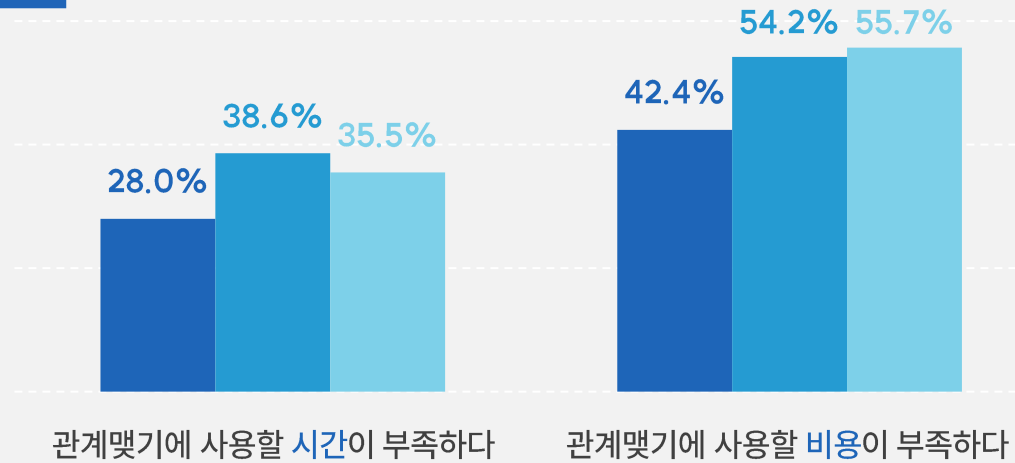


## [관계맺기에 사용할 시간/비용이 부족]

■ base: 전체, n=500

■ base: 지금보다 친밀한 관계가 늘어나길 원하지 않는 응답자, n=83

■ base: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피로하다는 응답자, n=286



“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날 시간에 일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부업을 할 것을 생각하면  
관계를 맺는데 발생하는 기회비용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지금은 취업이 우선인 상황이라  
관계를 맺는데 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워요

시험이나 과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바쁠 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서대로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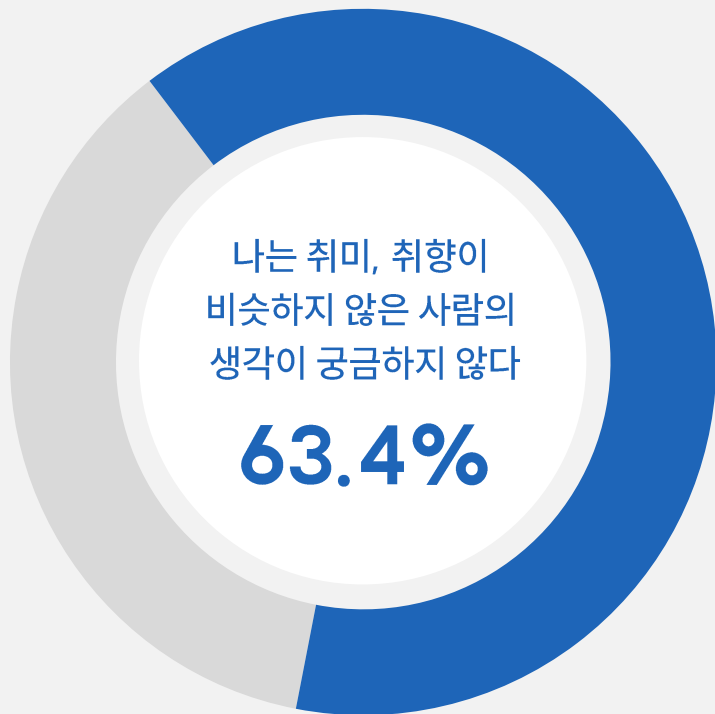
\* FGI 응답 발췌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 나를 위한 투자로 가득한 청년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타인을 향할 시간과 비용은 부족해 보입니다.

어려움을 넘어,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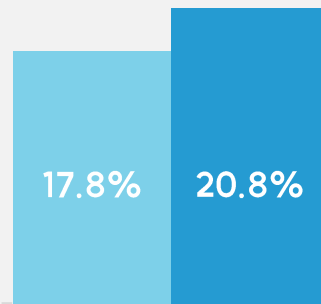
##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 base: 전체, n=500 ■ base: 취미/취향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은 응답자, n=317  
보통+긍정비율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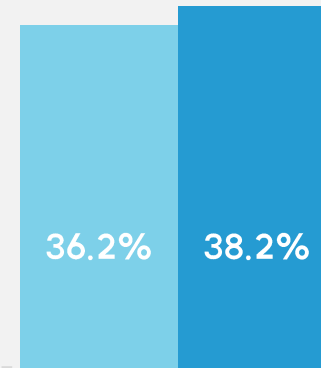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어려워...

+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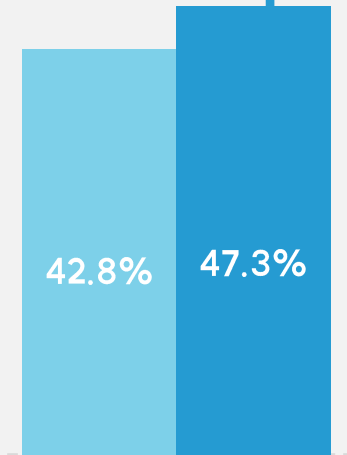
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어려워...

+2.0%p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할거야...

+4.5%p



“

사회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연봉의 차이나 경제적 지위, 성격 차이가 나지 않는 관계가 좋아요.

\* FGI 응답 발췌

“

가치관이 안 맞으면, 말을 하는 것도 약간 다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말을 잘 안 들어 줄 것 같고...

청년에게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하고, 피곤하고, 자기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유사성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유사성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

**서로 편리한 것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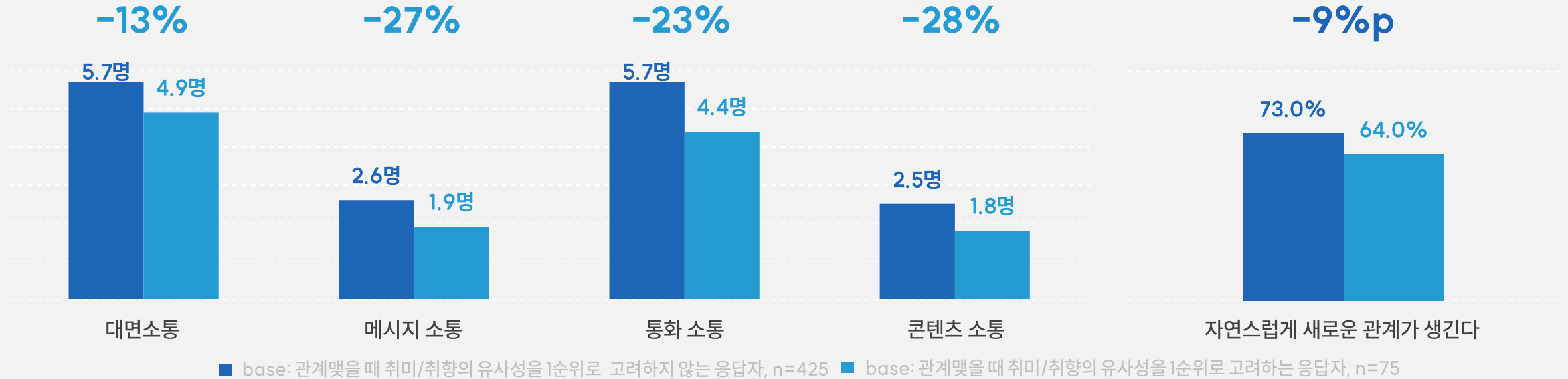
# 알고리즘의 편리함으로 인해 생긴 무형의 울타리

취미, 취향의 유사성을 중요시하는 응답자는 최근 1주일동안 22.8% 적은 인원과 물리적으로 소통하였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는 응답도 9.0% 낮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소통 방식에 따른 관계맺기 인원수]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

보통+긍정비율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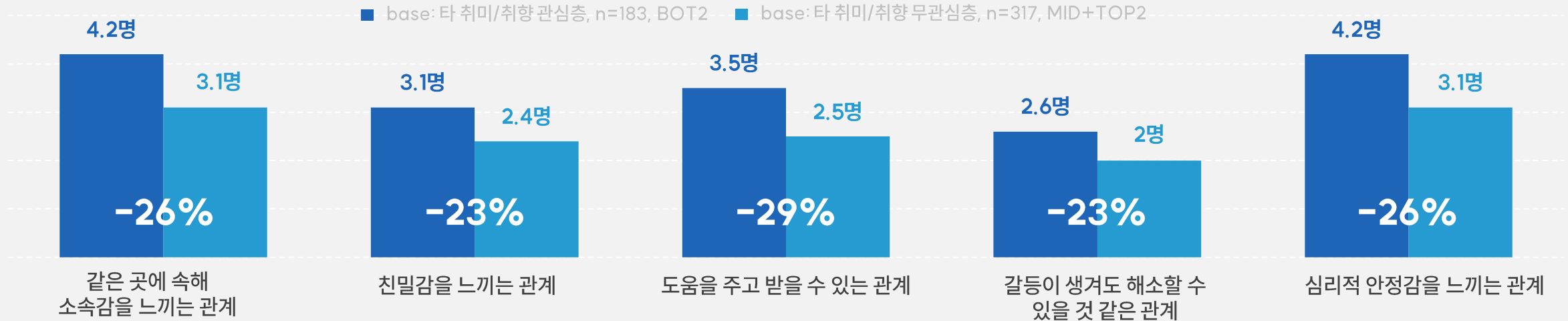
유사성이 만든 무형의 울타리는  
물리적인 소통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 무형의 울타리는 의미있는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속감, 친밀감, 도움 가능, 갈등 해소, 심리적 안정감 5가지의 감정적 소통 항목 전부에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는 낮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감정 분류에 따른 관계맺기 인원수]



“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팬덤 활동으로 온라인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는 빠르게 친해졌는데,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이는 없어 회의감이 들었어요.



“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잘 맞다고 생각한 친구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던 때가 있었고, 그때부터 그 친구와 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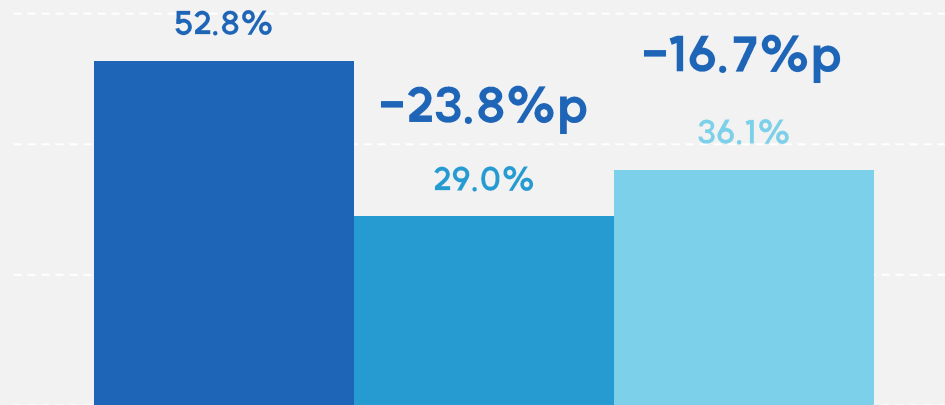
무형의 울타리는 의미있는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의미있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울타리 너머 나와 다름을 마주하는 것은 관계실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친구, 가족과의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눈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대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base: 전체, n=500
- base: 취미, 취향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은 응답자, n=317
- base: 지금보다 친밀한 관계가 늘어나길 원하지 않는 응답자, n=268



“  
오히려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다른 시각을 느낄 수 있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  
나와 취미가 다른 친구를 만나면,  
혼자서는 하지 않았을 스킬 넘치는 액티비티 같은  
취미를 시도해볼 수 있어요.

관계는 내 눈 앞에 보이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 도구는 아닐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풍성하게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키워줍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하는 사람의 시각을 통해 시각을 넓히고, 그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익혀 나갑니다.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방법도 익혀 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양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알고리즘 현상’이 두드러지는 청년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나는 환경적 조건이 비슷한 사람만 만난다’의 긍정응답자(TOP2) 중 27.8%

‘나는 취미, 취향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다’의 긍정응답자(TOP2) 중 26.2%

\* 전체 1위 : 타인이 삶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

사실 청년은 이 알고리즘 관계를 넘어  
더 의미있는 관계를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와 다른 사람과 맞추어 나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손쉬운 선택을 하는 것일 뿐이죠.

청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트렌드인지 들여다보는 것은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 트렌드에 따라 청년의 생각을 지레짐작 하고  
청년 개인의 지향에 모든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냥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단, 트렌드 너머에 있는 진짜 청년의 이야기,  
사회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관계실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트렌드 너머,  
진짜 청년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 상호 의존에 영향을 주는 <거리두기 현상> 거리두기 보고서는 7/15(월)에 발행됩니다.

## ISSUE 1

나와 비슷한 유사성을 조건으로  
관계를 맺는 현상



## ISSUE 2

관계에서조차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속마음을 숨기는 현상



## ISSUE 3

내가 필요로 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교류





**연구한 사람들** 심다솜, 민주희, 강국현, 김은혜

**함께한 사람들** 문송이, 이은재, 김유라

**디자인** 오은정

**Contact us** Tel: (02) 6958-1926

Email: [ds0322@oneul.or.kr](mailto:ds0322@oneul.or.kr)

Web: <https://www.oneul.or.kr>